

조 대 훈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회과 다문화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김 가 영

사회과 다문화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조 대 훈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김 가 영

인 준 서

김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한국 사회는 다문화화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적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방지하고 다문화 사회에 잘 대처 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의 함양을 가진 시민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 교과에 다문화 단원에 대한 인식과 내러티브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문화 단원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햇빛여고 일곱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다문화 단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학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수업 경험과 기회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토론, 그리고 다문화 현상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사례나 경험이 필요하다.

둘째,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실제 수업의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는 교사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다고 할 지라도 실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세 번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문화 교육의 실천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 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다문화관련 기관과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문화 교과에 대한 효능과 더불어 학생들의 인식도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2

II. 선행연구

1. 다문화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연구 4
 - 1) 다문화관련 교육과정 변천 4
 - 2) 다문화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 6
2. 학생들의 다문화적 태도 관련 연구 2
3. 학생들의 다문화적 태도 발달과 관련된 주요 이론 4
 - 1)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단계 (Bennett & Bennett, 2004)51
 - 2) 문화 정체성 발달이론 (Banks, 2006)71

III. 연구 방법론

1. 연구 방법의 특징 20
2. 연구 대상학교와 참여자의 선정 2
3. 연구 자료의 수집과 분석 25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1. 다문화 단원의 의도와 실제	27
2. 학생들의 다문화 단원에 대한 이해	31
(1) 다문화 이야기 1 : 긍정과 배려	53
(2) 다문화 이야기 2 : 무관심과 거리두기	83
(3) 다문화 이야기 3 : 경쟁과 위기의식	114
(4) 다문화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내러티브가 지니는 교육적 의미	64

V. 논의 및 시사점

1. 다문화 교육이 실종된 다문화 수업	50
2. “고립된 섬”으로서의 다문화 단원	55
3. 살아있는 다문화 수업에 대한 요청	57
4. 연구 참여 경험이 가지는 긍정적 영향	59
5. 결론 및 제언	61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II-1> 2007개정 사회 문화 교과서 목차	7
<표 II-2> 다문화 단원의 주요 내용	9
<표 II-3>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 단계	16
<표 II-4> 문화 정체성 발달	18
<표 III-1> 연구 참여자 Profile	23
<표 III-2> 면담을 위한 반 구조화된 설문지	26
<표 V-1> 아이들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정의	51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주가 보편화된 시대이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하게 되었다. 더불어 다른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과 더불어 각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게 되었다. 90년대 이후로 국제결혼률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한국사회의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의 확산과 더불어 한국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 되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24만 명으로,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는 2011년 기준으로 약 56만 명(출입국관리사무소, 2011),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약 20,360명에 이른다(통일부, 2011).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나 현재 초, 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가 약 3만 명을 넘어 섰다(김영희 2010).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증가에 기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지만, 한국인의 인식은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 인종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가 요구된다(황정미, 2007).

사회과를 통한 다문화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사회과 교육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공생과 상호존

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의 목적은 시민성 교육의 중핵 교과인 사회과 교육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들은 사회과 교실 안에서 다인종,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가치들을 습득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문화적 신념과 행동에 대한 개방성을 키울 수 있는 시기이다(Jensen, 2003). 청소년기에 문화와 인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성인기가 되어서도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된다(Dasen, 2000).

다문화 단원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드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실제 개정된 교육과정안에 담긴 다문화 관련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맥락으로 학생들에게 접목되고 해석되는지 살펴보고, 다문화 단원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교육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 능력을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 소재 사립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학생들이 가지는 다문화 교과 단원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심층면담기법에 근거하여 새로 개정된 사회문화 교과서 안에 담겨져 있는 다문화 관련 내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학습의 결과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고등학생의 관점에서 다문화 단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문화 단원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기술을 시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연구자가 출발점으로 삼은 탐색적인 연구 문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고등학생의 관점에서 다문화 단원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둘째, 이러한 학생들의 관점이 다문화 교육에 대하여 가지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1. 다문화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연구

1) 다문화관련 교육과정 변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었다. 특히 사회 문화 교과서의 경우에는 다문화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었다.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국제이해 교육과 다문화 교육이 반영되었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사회문화 교과서의 3단원 “문화와 사회” 단원에서 세계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다문화를 통하여 설명하였으며, 4단원 사회계층과 불평등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다룸으로써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개념과, 차별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2012년 3월 고시되었고, 현재 맥락이 제시된 201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부분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문화의 이해와 창조’ 단원을 통하여 세계화가 지역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해야하는지에 대한 태도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 개정교육과정 중 선택교육과정에서 일반 과목에 해당하는 사회에서는 ‘공정성과 삶의 질’ 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의미의 이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

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성과 관용’ 단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2 개정과정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 성, 계층, 장애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다문화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확장, 제시하였다. 탐구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찾고, 정책별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활동을 통하여 좀 더 현실적인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처방안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심화 선택과목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이 과목의 경우 실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사용될지 알 수 없으나, 세계문제, 비교문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교과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사회와 문화’ 교과에서는 현대 한국사회의 당면과제로써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개방적 문화 수용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 교과관련 교육과정 문서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다문화 사회’의 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201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되고 구체화 되었으며, 교과안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설규주(2012)는 초중고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다문화 관련 내용 분석 연구를 통하여 현행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성취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회과 교육과정 속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 다문화 관련 용어, 표현, 서술 태도, 사용된 자료 등의 형태와 같은 다문화 관련 내용의 접근의 측면과 문화, 사회 불평등, 사회제도 등과 같은 소재가 다문화적 변화의 맥락을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다문화 사회의 구성요소나 특징, 문제점, 대응방안들이 부분적 또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져 있다. 다문화적

사실과 관련한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분석 및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능력의 함양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 다문화관련 교과서 내용분석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2007 개정 사회문화 교과서는 금성, 천재교육, 교학사 총 3종이다. 이 3종 교과서를 목차를 중심으로 비교보았다, 대 단원은 동일하고, 중 단원과 소 단원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만 존재한다. 다문화를 주제로 다루는 단원은 크게 3개의 대단원이다.

‘Ⅲ. 문화와 사회’ 단원은 한국문화의 세계화 부분에서 한국 사회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다루고 있으며,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단원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을 통하여 다문화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V.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 단원에서는 금성과 천재교과서는 다문화 가족 형태를 통해 다문화라는 주제에 접근하는데 비해 교학사의 경우 ‘4. 종교제도와 다문화 주의’ 라는 단원을 통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종교 갈등과 다문화 가정의 종교 활동에 대해 다룬다는 점이 특이했다.

<표 II - 1> 2007개정 사회 문화 교과서 목차

금성출판사 (박선웅 외)	천재교육 (구정화 외)	교학사 (김영순 외)
Ⅲ. 문화와 사회		
1 문화와 인간 생활 2 문화의 변동과 다양성 3 <u>한국문화의 세계화</u>	1 문화의 의미와 특징 2 문화 이해의 관점과 태도 3 현대 사회의 다양한문화 양상 4 <u>문화 변동과 한국 문화의 다양성</u>	1 문화를 통해 읽는 사회 현상 2 다양한 문화적 양상과 문화 변동 3 <u>세계화의 한국 문화의 정체성</u>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1 사회 계층 현상의 이해 2 <u>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u> 3 사회 복지와 복지제도	1 사회 불평등의 의미와 유형 2 사회 계층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 3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 4 <u>사회 불평등의 여러 형태</u> 5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1 사회불평등 현상으로서 사회 계층 2 <u>사회 불평등 현상과 해결 방안</u> 3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제도
Ⅴ.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		
1 사회제도의 의미와 유형 2 <u>가족제도와 교육제도</u> 3 대중매체와 종교의 역할	1 사회 제도의 의미 2 <u>가족 제도</u> 3 교육 제도 4 대중 매체 5 종교 제도	1 사회 제도와 가족제도 2 교육제도와 기회균등 3 사회 제도로서의 대중매체 4 <u>종교제도와 다문화 주의</u>

(다문화 관련 단원은 고딕, 이탤릭체로 표시)

본 연구의 대상인 금성출판사의 사회문화 교과서의 다문화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보았듯 고등학교 <사회.문화>는 3종의 교과서가 있다. 하지만 이 중 금성교과서가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교과서 123쪽에서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로 정의한다. 이는 단순히 ‘다문화사회’를 많은 문화, 다양한 문화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특정한 사회 단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와 관련한 대상에 대해 다문화 가족, 국제 결혼 가족(188쪽), 다문화 가정(124쪽), 외국인 노동자(123쪽), 외국인 이주 노동자(157쪽) 등의 여러 가지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표 II-2> 다문화단원의 주요 내용

3단원 문화와 사회 (3) 한국 문화의 세계화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의 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지구적인 노동력의 이동과 국제 결혼의 증가 등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심화 *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 결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변모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의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
다문화 현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내 문화적 소수자들은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의 대상이 되기 쉽다.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타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관용의 자세가 필요. * 탐구활동 - 오바마와 사르코지 대통령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 출신의 정치인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일반 가정 및 다문화 가정에게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가?
4단원 사회계층과 불평등 (3) 사회적 소수자 차별문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과 이들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는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나 자신도 얼마든지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된다. * 차이를 중중하되 차별은 없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 * 탐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캄보디아인이 겪은 목욕탕에서의 차별 사례 (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사례 (장애, 인종, 종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과 정책, 제도적 뒷받침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 *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법과 제도의 정비,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어울리는 사회적 규칙을 만들어야함. * 탐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
5단원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2) 가족제도와 교육제도	
가족의 다양한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형태는 사회 변동 과정에서 변화 *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제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과 같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도 계속 늘고 있다.

교과서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은 크게 3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첫째, 3단원 문화와 사회의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의 도래 (123-124쪽)” 부분을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이를 “피부색이 다르거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며, 우리에게 낯선 종교를 가진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표현으로 구체화한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와 “국내 거주 외국인 구성”의 통계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의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의 사진을 통해 시각화 시키고 있다. 124쪽에서는 “다문화 현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를 통하여 문화적 다양성의 장점과 더불어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회 내 문화적 소수자들은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을 제시하며, 실제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의 대다수가 경제적 빈곤층이며, 직장과 사회에서의 차별, 인권 침해의 경험, 집단 따돌림, 낮은 학업성취 등으로 인한 불평등은 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제시한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개방적 태도와 관용의 자세가 필요함을 이야기 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의 사례를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다문화 가정 출신인 정치인이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은 일반 가정 및 다문화 가정에 어떤 긍정적인 갖는지 생각해 보도록 제시한다.

두 번째 부분은 4단원 사회계층과 불평등 단원의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이다(155~158쪽). 이 단원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을 “성, 나이, 장애, 인종, 국적, 종교, 사상 등의 측면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기준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와 환경,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활동’ 부분을 통하여 인종, 장애,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 사례를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차별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생각하게 하는 탐구 활동을 제시한다. 또한 교과서 지문을 통하여 “차이를 존중하되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표현으로 차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의도한다. 또한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157쪽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 방안”이라는 소주제를 두어 국민의 인식과 태도 뿐 아니라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한다. 이를 위해 인식 전환과, 제도 변화의 두 가지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시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가능”, “**시 의회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의 실제 사례를 보여준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라는 탐구 주제를 제시하여, 태도와 인식의 변화 뿐 아니라 제도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 부분은 5단원 일상생활과 사회제도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써 여러 형태의 가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88쪽에서는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도 계속 늘고 있다.”는 표현을 통하여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종합해 보면, 다문화 사회의 도래, 사회적 소수자, 새로운 가족 형태(다문화 가족)이 세 부분에서 다문화 현상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세와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내용과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하여 교과서 학생들은 다문화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다문화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능력의 함양을 의도한다.

2. 학생들의 다문화적 태도 관련 연구

다문화 태도에 대한 연구는 90년대 후반 이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다문화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실행하는 교사들의 인식을 연구하는 선행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정선희, 1997; 김선미, 1998; 김대현, 2010; 한명희, 2005; 모경환·황혜원 2007 등). 하지만 학생들이 실제 수업 속에서 다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교과 내용과 교재에 대한 이해와 반응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중, 고등 학생의 다문화 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련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첫째,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배타적이거나, 중립적(무관심) 성향과 더불어 단일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종남(2012)은 학생들이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보이지만, 몇몇 항목에서 배타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단일 민족의식이 남아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해 소수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며, 대부분은 중립적 입장으로 무관심한 성향을 보인다. 다문화 학생을 도와주거나, 친구가 되는 것에는 호의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학급의 짝이나 반장이 되는 것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 전경숙 외(2007)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또래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나 친근감 정도는 낮은 편이고, 학생들은 인종별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런 면은 다문화적 경험이 없는 학생에게 더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높은 자긍심이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대해 높은 거부감을 갖게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황미애(2009)에서는 고등학생의

다문화적 태도와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 인종, 민족, 출신국의 경제력과 같은 요소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불완전한 다문화적 태도”를 보인다. 학생들은, 유난영(2008)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 단일민족의식, 고정관념, 사회적 거리감 등의 경향을 살펴 본 결과, 청소년들의 다문화적 태도 형성에 있어 단일 민족의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의 다문화적 태도 형성에 있어, 다문화적 경험이 영향을 준다. 임주용(2010)은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에 있어 다른나라에 대한 문화 교육경험과 외국경험이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접할 기회가 많은 농촌아이들이 도시아이들보다 다문화적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한다. 정석원 외(2012)는 다문화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적 인식이나 개방성, 다문화적 공감과 같은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긍정적으로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진아(2009)는 학생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배경요인으로 해외여행과 해외 연수경험, 주변의 다문화 가정의 유무를 제시하였다. 다문화적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열린 자세와 관계 존중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진아(2009)에서는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의 실행 수준을 분석하였다. 고등학생들은 대체로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실행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고유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지적하였다. 강준영(2008)에서는 사회문화 과목의 교육목표에는 다문화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다문화 교육에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 것이 아닌 타 개념을 설명하는 도구로만 이용되고 있어, 학습자들이 교사의 설명이 없다면, 그것이 다문화 교육의 내용이라는

인식을 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아직 학생들은 다문화 교육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위의 선행연구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학생들의 다문화적 태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며,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단일 민족 의식이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들의 다문화적 태도에 있어 외국 여행이나 해외 여행은 긍정적 태도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 수업 속의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이 미비하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 특히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향후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해 가는데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다문화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 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과 단원이 학생들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사회과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한다.

3. 학생들의 다문화적 태도 발달과 관련된 주요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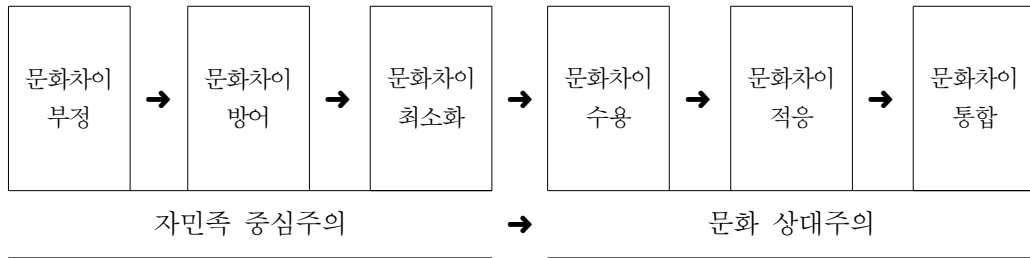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사회과 교실에서 교과서를 통해 접하는 다문화 관련 단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로서 연구자는 ‘다문화적 인성 발달 이론’을 사용하고자 한다(은지용, 2009, p.110). ‘다문화적 인성’이란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지능력, 수용 태도 및 행동특성 등을 포괄하는 심리적 특성을 말하며, ‘다문화적 인성 발달 이론’이란 다문화적 인성발달과 관련된 발달과정에 대한 이론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다문화적 인성 발달이론으로 베넷과 베넷(Bennett & Bennett, 2004)의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 이

론’ 과 뱅크스(Banks, 2006)의 ‘문화 정체성 발달 이론’ 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단계 (Bennett & Bennett, 2004)

먼저, 베넷과 베넷(Bennett & Bennett, 2004)은 둘 이상의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한 개인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어떻게 발달시키는가에 초점을 둔다. 문화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단계별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인지, 정서적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이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경험이 누적 되면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의식 구조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태도와 행동 정향 등이 진전되고 세련되어져는 과정을 의미한다(Bennett & Bennett, 2004, pp. 149-153). Bennett & Bennett은 간문화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설명하는 분석 틀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이 여섯 가지의 발달 단계를 거치는 이른바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다(Bennett & Bennett, 2004, pp. 152-158).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의 여섯 단계 중에서 처음 세 단계는 자신의 문화가 현실에서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문화 차이를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최소화하는 단계인 자민족 중심적(ethnocentric) 단계에 해당한다. 반면, 그 다음 세 단계는 문화 차이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거나 공감하는 민족 상대주의적(ethnorelative) 단계에 해당한다(조대훈, 2012 a; 구정화·박윤경·설규주, 2009). 각 단계별 발달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3>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 단계 (Bennett & Bennett, 2004)



(은지용, 2009 재인용)

문화차이 부정 단계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전혀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주류적 문화 위치를 우월하게 느낀다. 이 단계에서는 타 문화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거나 모호하게 이해하며, 그 결과 타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냥 ‘외국인’ 또는 ‘이민자’ 와 같은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한다.

문화 차이 방어(defense) 단계에서는 문화적 차이는 인식하지만, 자신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 단계에서는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고, 자신과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문화의 존재가 우리 삶의 가치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진다.

문화차이 경시(minimization) 단계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 하지만 여전히 주류 집단이 제도권내에게 문화적 우월성을 발휘하는 것을 특권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차이 수용(acceptance) 단계에서는 자신의 문화가 많은 문화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말하는 가치, 신념, 행동 등에 대하여 맥락적인 차이를 인정한다.

문화차이 적응(adaptation) 단계는, 자신의 인지적 틀을 바꾸어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가진다. 이 단계에서는 타 문화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단순히 인지적 변화 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정서, 행동의 변화까지 경험할 수 있다.

문화차이 통합(integration) 단계에서는 문화적으로 특정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서도 개별 문화들에서 나타나는 고유성이 주변화 된 채로 상호독립성을 가지면서도 공존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 단계에서는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 어느 한 쪽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면서 소외를 경험하는 고립적 주변성의 문제나, 다문화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구성적 주변성의 유형이 나타난다.

이러한 간 문화적 감수성 발달은 문화적 차이에 대해 부정하는 단계에서 통합하는 단계로 발달함을 통하여 주류적인 문화 집단이나 주류 집단의 문화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다문화적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2) 문화 정체성 발달이론 (Banks,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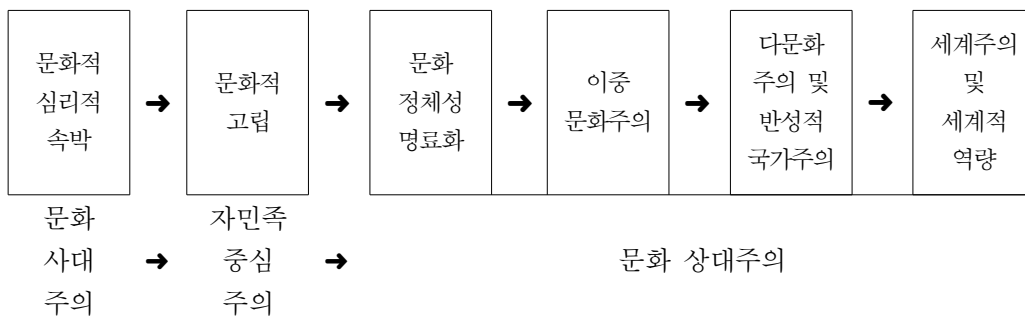
문화적 정체성 발달 이론은 자신이 속한 집단 문화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 차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인식하며 어떠한 가치 지향적 신념과 태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은지용, 2009 p.118)

뱅크스에 따르면, 개인은 인종, 성, 지역, 성적성향, 언어, 장애 등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하게 되어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되며, 여기서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이란 자신이 속한 문화적 집단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는 개인의 주관적인 자아 개념으로 볼 수 있다(Banks, 2006, p.132).

뱅크스는 2개 이상의 다문화에 속한 개인의 문화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6단계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문화적 정체성 발달의 여섯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문화에 대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문화적

사대주의 단계에 해당하며,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문화가 우월하다고 믿는 자민족 중심주의 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이후는 자 문화와 타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 단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발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4> 문화 정체성 발달(Banks 2008)



(은지용, 2009 재구성)

문화적·심리적 속박(cultural psychological captivity) 단계는 자신이 속한 문화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믿음을 내면화한다. 개인은 사회 내에 제도화되어 있는 자신의 문화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어 자기 부정이나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나타내며, 타 문화 집단과 접촉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

문화적 고립(cultural encapsulation) 단계는 자신이 속한 문화 집단에서 참여하려 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에 대한 우월성이 높은 편이다. 사회의 주류 집단 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집단이 다른 문화 집단에 비해 우월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문화적 정체성 명료화(cultural identity clarification) 단계에서는 자신이 속한 문화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진다. 동시에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의 문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이중문화주의(biculturalism) 단계는 자신의 문화 집단을 존중하면서, 다른 문화 집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자신의 문화 공동체뿐 아니라 다른 문화 공동체에도 성공적으로 참여한다. 서로 다른 두 문화 속에서 효과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다문화주의 및 반성적 국가주의(multiculturalism and reflective nationalism) 단계는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여러 하위문화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유하는 다문화적 관점과 감정을 가진다. 그리고 개인은 인간의 존엄과 정의의 측면에서 국가적 이상, 신념, 가치 등에 대해 반성적으로 숙고한다.

세계주의 및 세계적 역량(globalism and global competency) 단계에서 개인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를 내면화 한다. 그리고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하위문화를 이해하고, 반성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다.

문화 정체성 발달 이론은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이 문화에서의 다양성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성찰하고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에 대하여 숙고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Ⅲ. 연구 방법론

1. 연구 방법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이해하는데 있어, 보다 통찰력 있고, 심층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심층 면담법을 선택하였다.

양적 연구가 조작적으로 정의된 변수 들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 일반화와 이론의 완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질적 연구는 현상학적 관점을 기초로 귀납적 방법으로 의미와 개념 구성의 과정, 가치, 맥락, 해석에 초점을 둔다 (Wolcott, 1994).

심층면접기법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들을 갖고, 관찰의 현장에서 그 의문을 질문의 형태로 풀어나간다(조용환, 1999).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시각에서 현상에 대한 의미 부여와 인식을 파악하는 내부적 관점을 중시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세계를 기술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다.

김영천(2006)에 의하면, 심층면담은 면담대상자로부터 정보, 의견 또는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진 대화를 의미한다.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체계, 의식, 주관, 감정을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목적적인 연구방법이다. 심층면담의 방식은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구조화된 면담(structured interview)은 미리 정해지고 표준화된 폐쇄형 질문으로 이루어진 질문에 의해 면담을 진행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의 면담은 면

답상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질문내용, 구조화된 조사표, 질문의 순서, 질문의 방법 등이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미숙한 연구자도 실시할 수 있고, 정보 비교도 용이하며, 다른 면담법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구조화된 면담은 융통성 있는 진행을 어렵게 하고 면담대상자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을 표출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장 질적이지 않은 면담법(김영천, 2006)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비 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은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의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면담을 선호하는 학자들은 심층면담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거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닌 면담대상자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층면담에서 사용되는 질문은 미리 구조화하기보다는 면담대상자가 말한 것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면담은 연구자가 생각했던 연구의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거나 면담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면담이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자의 매우 숙련된 면담기술을 필요로 한다.

또한, 반 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이란 연구자의 개인적인 면담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면담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고 면담의 내용이 연구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면담의 틀을 어느 정도 구조화하지만 면담할 때는 면담대상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과정을 융통성 있게 진행시키는 방법을 말한다(김영천, 2006).

실제 면담을 수행해보면 각각의 면담이 연구자에게 끊임없는 즉각적인 결정과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구의 준비와 계획단계에서는 신중하게 면담에서 하고자 하는 질문과 면담의 틀을 어느 정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반 구조화된 면담은 구조화된 면담과 비 구조화된 면담의 장·단점을 절충한 것으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담의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적 관점에 기초하여, 심층 면담의 기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반 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주관적 관점과 해석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2. 연구 대상학교와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세계화라는 말이 일상용어가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어민교사의 수업을 받아 보았고, 외국에서 연수나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학생도 있다. 언론 등을 통하여 다문화 현상을 접해 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에 대한 인지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로 판단되어 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외국여행 또는 일정기간 이상 체류 경험만을 유의미한 경험으로 처리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학생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실제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 대부분이 해외 체류경험이 없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다문화 교과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봄에 있어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체류경험이 없는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학생의 선정 기준은 햇빛 여고 2학년 문과생 중 1) 지난 학기 사회문화 수업을 들었고, 2) 해외 체류경험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 학업성적 상-중-하 수준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발하였다¹⁾.

1) 2학년 1학기 내신 등급 기준으로, 상 3명, 중 2명, 하 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분류기준은 상(1-3등급), 중(4-6등급), 하(7-9등급)이다.

<표 III-1> 연구 참여자 Profile

학생명	성별	학교명	학년(나이)	해외체 류경험	학업성 취도
김민선	여	햇빛여자고등학교	2학년(18세)	무	상
조보람	여	햇빛여자고등학교	2학년(18세)	무	상
장수정	여	햇빛여자고등학교	2학년(18세)	무	상
조수민	여	햇빛여자고등학교	2학년(18세)	무	중
김효원	여	햇빛여자고등학교	2학년(18세)	무	중
정성민	여	햇빛여자고등학교	2학년(18세)	무	하
구진경	여	햇빛여자고등학교	2학년(18세)	무	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특이할만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민선 학생은 여성스러운 성격의 중학교 3학년의 남동생이 있다. 미용사가 꿈인 남동생은 민선의 네일아트를 해줄 정도로 친하다. 민선은 학업에 관심이 많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이다. 1학기 반장이었으며, 수업의 모든 내용, 심지어는 선생님의 농담까지도 필기하는 학생이다.

조보람 학생은 2학기 반장이었다. 학업에 욕심이 많고, 시간 관리에 있어 철두철미한 스타일이다. 규칙을 어기는 것을 싫어한다. 태권도를 하는 남동생을 두고 있으며, 본인도 테니스가 수준급이라고 한다. 매주 2회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숙제 돌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 곳에서 베트남 어머니를 둔 초등학생 아이를 만났다고 한다.

장수정 학생은 리더십이 강하고, 활발한 성격의 학생으로 반에서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한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반 대항 구기대회를 우승으로 이끌 정도로 운동을 잘하며, 아이들을 잘 통솔한다.

조수민 학생은 일본 유학과 직장생활 중 일본인과 결혼한 고모와 삼촌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인 고모부와 숙모를 만나 본 적은 없다고 한다. 수민이의 집은 대대로 천주교 집안이며, 맞벌이 하는 부모님 대신 수민이를 키운 할머니는 일제 시대에 일본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라고 한다. 수민이는 공부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이 많다. 특히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여, 거의 유명한 미국드라마는 빼놓지 않고 보는 편이다.

김효원 학생은 자신이 키가 작고 뚱뚱하다고 생각하여, 대인관계에 있어 약간 위축 되어있다. 주말이나 학교가 끝나면 틈틈이 부모님이 하시는 빵집 일을 돕는다. 수업시간엔 주로 많이 졸거나 자는 편이고, 방과 후 보충 수업은 열심히 듣는다고 한다.

정성민 학생은 필기나 책 정리를 잘 안하는 스타일이라 책 검사가 수행평가인 사회문화와 지리 과목에서 늘 감점을 당한다. 수업의 내용보다는 선생님의 농담이 더 기억이 잘 난다고 말한다. 학업에는 관심이 적지만, 시사, 정치, 사회 현상에 관심이 많고, 최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며, 호기심이 많다. 오빠와 남동생이 있으며, 장난끼가 많다.

구진경 학생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편이다. 처음 인터뷰 전에 만날 때도 혼자오기 부끄러워 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했었다. 진경이는 형제가 없고 외동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가냘픈 외모와 함께 성격도 전형적인 부끄러움 많은 소녀이다. 외모에 관심이 많아 인터뷰 내내 틈틈이 거울을 보곤 했었다.

연구 참여자가 있는 햇빛여고는 서울시 소재의 사립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경제적인 수준이 중 하위계층에 가깝고, 학업 성취가 그리 높지 않은 관계로 서울 4년제 대학의 진학률도 높은 편은 아니다. 학생들은 수능보다는 수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학교의 분위기 역시 진학 실적을 그리 강조하지는 않는다. 수능이나 학업을 강조하기 보다는 학교 수업과 내신, 그리고 교내 활동을 강조하는 분위기의 학교이다.

3. 연구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일반적인 과정에 따라 연구 설계, 코딩(약호화), 주제의 범주화, 자료의 분석, 그리고 주요 발견 주제 제시 등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연구 초기 연구자가 미리 예측 불가능한 문제를 포섭하기 위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면접이라는 연구방법의 특성 상 조사자의 언어 수준이 자신의 심층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자가 조사의 내용과 취지를 공감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질적 연구의 성패가 달려 있다. 따라서 예비조사를 거쳐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점검하고 학생에 이해도에 따라 적절한 조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1차면담을 실시했다. 1차면담이 끝난 후 1차면담의 전사와 코딩작업이 이루어진 3주 후 최종 2차면담이 이루어졌다. 각 면담은 40분에서 1시간 분량으로 이루어 졌으며, 학생들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다.

<표Ⅲ-3> 면담을 위한 반 구조화된 설문지

I. 생애사적 질문

- (개인) 가족관계, 취미, 종교, 꿈, 좋아하는 것들(음식, 가수....)
- (학업, 학교관련) 학교 생활은 어떤지, 좋아하는 과목 등
- (사회과목) 사회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
- (사회문화 관련) 사회문화 과목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

II. 다문화 단원의 이해

- 교과서 내용
 - * 3개의 단원별 내용과 표현, 탐구 활동에 관한 질문
(예시, 탐구활동내용, 사진 등에 대한 느낌과 생각)
- 다문화 관련 논쟁적 질문
 - * 다문화 현상에 대한 생각
 - * ex) 다문화 출신 정치인, 대통령, 반장 등에 대한 생각
차별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일반적인 현상인가? 등..
- 선생님과 수업에 대한 질문
 - * 수업에 임하는 태도
 - * 교사의 수업과 설명 방식 등..
 - * 제시된 자료와 판서내용, 예시.
- 잠재적 교육과정 (수업 이외의 곳에서 접해 본 경험 및 생각)
- 입시와 진로 관련하여 단원이 미치는 영향

III. 추가적인 질문 및 확인

- *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이나, 더 확인해야할 사항들.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일곱 명의 학생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햇빛여고 아이들의 다문화 단원에 대한 내러티브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문화 단원이 실제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실재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현상에 대한 생각과 실제수업의 현 주소, 그리고 다문화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이들이 다문화 단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 살펴보았다.

1. 다문화 단원의 의도와 실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 1때 사회과목을 배우지 않고, 중학교 교과에서도 다문화 단원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사회문화 과목을 통해 처음으로 ‘다문화’ 라는 개념을 접하였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문화 교과서 3,4,5단원에는 다문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학생들이 경험한 다문화 수업의 실제와 더불어 교과서 안에 담긴 다문화 교과에 대한 의도와 방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사회문화 교과서 3단원 “세계화와 다문화 도래”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 인식하도록 의도한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 결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교과서 123페이지)

둘째, 다문화 사회로의 변모는 문화적 다양성이 실현되는 사회로 우리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21C 한국사회는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중략).... 한국은 이제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교과서 123페이지)

세 번째, 다문화 사회에 갖는 부정적 견해는 단일민족의식으로 인한 편견의 결과이고, 인종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존중하고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주의와 더불어 개방적 태도와 관용의 정신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자국의 문화를 기준으로 상대 문화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이는 집단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중략)... 다문화 가정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이며, 우리는 다른 문화를 관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하고 국가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타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교과서 124페이지)

4단원의 “사회적 소수자 차별문제” 부분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현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를 학습목표로 제시한다.

“사회가 개방화 다원화 세계화됨에 따라 우리사회에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중국동포, 북한 이탈 주민 등 국적, 지역, 인종, 민족적 의미의 사회적 소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

자, 장애인, 노약자들처럼 종교, 장애, 연령 등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들도 공존하고 있다.”(교과서 155페이지)

우선, 위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이 편견과 선입견에 있다고 본다.

“사회적 소수자는....(중략)....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기준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교과서 155페이지)

“우리는 그들을 ‘다름’이라는 말로 구분 짓고, 그것이 우리는 정상이고, 그들은 비 정상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통해 그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중략)... 차이는 존중하되 차별은 없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교과서 156페이지)

세 번째로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식적 변화와 더불어 법, 정책,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과서 157페이지 ‘시사산책’ 부분에서 실제 제도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과 정책, 제도적 뒷받침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교과서 157페이지)

5단원에서는 가족형태의 다양화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할 것을 강조한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제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과 같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늘고 있다. 따라서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교과서 188페이지)

교과서 188페이지 ‘시사산책’ 부분에서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를 제시하며, 이 역시 다문화의 한 부분이며, 인정해야 할 부분임을 제시한다.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더불어 국제결혼가정, 한 부모가족, 독신가족, 재혼가족, 무자녀 가족, 동성가족’을 사례로 들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현재 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갈등과 차별 등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관용과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 또한 다문화의 개념을 단순히 외국인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와의 교류에 국한하지 않고, 4단원과 5단원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즉 다른 신념이나 가치체계까지 다문화로 확장시켜 이해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인종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해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상호이해와 평등 관계를 중시하고,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를 함양하도록 의도한다.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이해를 통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과서의 의도가 실제 수업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평상시 사회문화 수업은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선생님이 판서하면, 노트나 책 한쪽에 필기를 하고, 판서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듣는다. 그리고 과제로 판서된 내용을 책에서 찾아 줄을 치는 등의 나름의 책 정리를 한다. 그리고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책을 걷어 검사한 후 수행평가에 반영한다. 하지만 연구범위였던 세 부분의 다문화 단원은 모두 판서 없이 교사가 직접 책에 줄을 치고 넘어 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은 괜찮긴 해요. 친절한 스타일? 예를 많이 들어줘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충 줄치고 넘어 갔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지 별 느낌은 없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해요. (장수정)

선생님이 먼저 판서하고, 판서한 것을 따라서 쓰고 나면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나중에 판서에 관련된 부분 각자 책에 줄쳐요. 그럼 그게 수행평가. 항상 글씨 쓰는 게 느려서 판서 적느라 예나 설명을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이 단원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하시면서, 그냥 줄치고 넘어갔어요. 크게 설명 들었던 기억은 안나요. 주로 시험 공부할 땐 보충교재(EBS) 보니까. 그냥 개념 요약 되어있는 것이요. (김효원)

아이들은 다문화 단원 수업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그냥 줄치고 빠르게 넘어갔다는 정도의 기억 뿐 이었다. 따라서 다문화 단원이 의도한 바가 실현되지 못하였고, 또한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 역시 많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이런 수업의 행태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선생님과 과의 대화를 통해 들어 보았다.

다문화 단원에 대한 수업의 행태에 대해 교사는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으로 인해 학부모나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과 수업시간의 부족과 과중한 교사의 업무, 그리고 다른 선생님과의 협의의 어려움 등이 정규 교과시간에 다문화 교육이 실현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중이수제로 진행되다 보니 한 학기동안 진도를 나가야 하죠. 게다가 학교행사, 공휴일을 제하고 나면 진도 나가기 바빠요. 진도 나가면서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또 시간이 된다고 해도, 내신에 입시에 비중이 적은 부분에 시간을 쏟으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또 여러 선생님들이 나누어 가르치다 보니²⁾ 앞반 선생님하고 가르치는 내용의 차이가 다면 안되니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교과서 외의 내용을 끌어 오기는 힘들죠. 그러한 사소한 제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다문화 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수업의 방식 뿐 아니라 수업에 대해서 아이들은 단원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수업내용은 쉬워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험을 위해 공부할 때는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 이 부분이 좀 당연한 걸 배우니깐 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막상 공부를 하면 어려워요. 특히 문제 풀면 잘 모르겠고... 솔직히 선생님이 수업을 너무 쉽게 하시니깐 지겹기도 하고 수업을 조금 하면서 문제는 너무 어렵게 내고... 수업의 대부분이 필기하는데 써버리고, 설명도 너무 쉬워서 그래요. 솔직히 이 단원들의 내용을 보면 중학교 3학년도 쉽게 이해할 수준인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깐 수업도 너무 쉽고, 교과서 내용도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넘어가게 되니깐 이 문제에 대해 좀 생각할 마음이나, 기회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조보람)

실제 사회현상이라는 느낌보다 그냥 공부해야할 내용. 딱딱하게 다가와요.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느낌? 실제적인 예나 사례들이 좀 많고, 그런 것들을 수업시간에 좀 다루고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냥 시험공부

2) 햇빛여고의 경우 집중이수제로 인하여 사회문화를 2학년때 학습하며, 4명의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다.

때문에 본다는 느낌 이에요, 그리고 뭐 어차피 많이 나오지도 않으니깐 아무래도 다른 부분을 더 공부하게 되죠. (김민선)

아이들은 대부분 사회문화를 수능 선택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문화 단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하여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았다. 내신이나 수능에 별로 비중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부분을 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선택과목이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하는 거고, 2학년 때 다 배우니깐 무난해서요. 사회문화를 선택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배울 땐 몰래몰래 자기도 했는데... 그다지 비중이 없을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줄치고 넘어가고 그러다보니. 보충시간에도 이 부분은 비중이 적다고 거의 안보구요. (정성민)

사회문화는 고3때 선택할거 같아요. 공부하기도 편하고, 익숙한 주제들이 많아서요. 이 단원 내용들은 별로 열심히 듣기보다 편하게 들었어요, 별로 비중이 없을 거 같아서요. (구진경)

다문화 단원의 교육의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주목할 만한 수업사태나 수업 내용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아이들 역시 스쳐지나가는 듯 한 수업이었다고 기억한다. 교사 역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상 내실 있는 다문화 단원의 수업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즉 선생님과 학생들의 내러티브는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2. 학생들의 다문화 단원에 대한 이해

앞서 살펴보았 듯, 실제 다문화 단원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다문화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다문화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을 느꼈다.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 수업 안에서, 수업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의 이야기에 학교는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았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수업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다문화 단원에 관한 교과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목적은 비록 수업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다루어 지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다문화 단원에서의 다문화 사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이나, 편견, 고정 관념, 태도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적을 가졌다. 연구자는 연구과정 중에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변화를 의도하지는 않았다. 연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인터뷰 시에도 연구자의 견해, 생각 등을 최대한 배제하고, 아이들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아이들은 다문화 단원과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스스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견해가 정리되어, 대화 속에서 표현되었다.

같은 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일곱 명의 햇빛여고 아이들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다문화 현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의 생각은 실제 다문화 교과를 이해하고 받아드리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교과서는 다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일종의 창문이었다. 교과서의 다문화 관련 단원은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창문의 역할을 하였다.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다문화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보람이와 성민이, 수정이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고, 효원이와 민선이, 진경이

는 부정에 가깝지만 이해해 보려는 성향을 보였다. 수민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다문화 현상에 대해 당연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앞서 살펴본 벵크스의 문화 정체성 발달이론과 베넷과 베넷의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단계에 아이들을 비추어 보면, 보람, 성민, 진경, 수정, 민선은 문화적 고립(자민족 중심주의), 수민이는 문화 정체성 명료화(문화 상대주의)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실제로 한 개인이 둘 이상의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의 발달을 볼 수 있는 베넷과 베넷의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단계를 통해서 보면 보람이의 경우 문화 차이 부정이나, 문화 차이 방어의 단계를 보인다. 수정이와 성민이의 경우 문화차이 방어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며, 효원이와 민선이, 진경이는 문화차이 방어와 최소화의 중간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수민이는 문화차이 최소화의 모습을 보이지만 때로는 수용의 단계의 성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아이들의 인식은 아이들이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단원에 대한 인식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1) 다문화 이야기 1 : 긍정과 배려

수민이의 경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다문화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인지의 틀을 바꾸거나 문화 정체성이 문화적 맥락의 안과 밖을 유연하게 넘나드는 수준은 아니었다. 다문화 현상에 대해 인정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려고 하는 성향을 보인다. 아마도, 인터뷰 과정에서 알게 된 수민이의 취미와, 가정환경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고모랑 삼촌이 다른 나라 분이랑 결혼하셨어요. 아이는 두 분 다 없어요. 고모는 일본 유학중에 연애해서 결혼하시고, 삼촌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일하시다가 만나셔서 결혼하셨어요. 고모의 경우 되게 오래 전이었는데 할머니가 일본에 대해 열려있으셔서 반대는 없었어요, 삼촌이야 요 근래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였어요.

미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거부감이 없어요. CSI , 크리미널 마인드..... 드라마 속에서 흑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다 보니 인종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조수민)

하지만 수민이는 외국 사람인 고모부와 외숙모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다고 한다. 단지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 이러한 배경이 수민이의 다문화 현상의 인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미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수민이의 취미가 수민이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시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수민이는 다문화 현상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체계를 바꾸거나 통합시키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한다. 베넷과 베넷의 분류의 문화차이 최소화에서 볼 수 있는 외관상 문화적 차이는 인정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같다” 는 가정을 하는 특징을 수민이와의 이야기는 시사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억지로 막을 수는 없으니깐 받아드려야 한다고 봐요. 피할 수 없음 즐겨라라는 말처럼 현실이니깐 받아 드려야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 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3D업종을 기피하면서 생겨나는 문제니깐.... 요즘 시대가 워낙 세계화를 강조하다 보니깐 세계화 추세에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해요. 어차피 나도 세계화에 발맞추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외국기업도 갈 수 있고 그때 나도 사회적 소수자 일 수 있기 때문에 담담

하게 받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사람사는데 거기서 거기죠.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다 그냥 먹고사는 모습이 다 똑같죠 뭐. (조수민)

교과서에서 차이를 존중하되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아이들도 거의 동의하고 있다. 물론, 모든 차이를 다 인정하진 않는다. 성적소수자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보호는 받되 악용하는 사람(양심적 병역거부자)은 없어야 해요. 즉,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해요. 하지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봐요 그들은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취향을 가지는 거라 생각되거든요. (조수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수민이는 상당히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 출신이 사회적 리더(대통령 등)이 되는 것이 어떠냐는 물음에 일반후보와 다를 것이 없이 정치적인 요소와 능력을 보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배려’와 ‘역지사지’의 입장을 강조한다.

왜 저럴까 싶기도 해요. 제가 개방적인 건가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러지 싶기도하고.. 그래요. 역지사지라고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입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깐...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차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니깐.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깐 사회적 소수자중 성적 소수자는 그 사람의 기호? 그냥 이렇게 봐주는 거, 그 사람의 취향이니까 인정이 되요. (조수민)

(2) 다문화 이야기 2 : 무관심과 거리두기

효원이와 민선이, 진경이는 다문화 현상에 대해 조금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즉, 다문화 사회의 도래가 자신과 상관없다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거부하지는 않는 행태를 보였다.

효원의 경우 다문화 출신이 대통령이나 사회의 리더십이 되는 거에 대해 능력이 된다면 괜찮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분위기상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 한다.

출신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건 좋은거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백인이나 흑인,, 아니, 다문화라면 왠지 거부감들거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아예 안뵈을거 같아요.(김효원)

민선의 경우 거부감은 들지만 살아온 환경이 우리와 같다면 상관없다고 이야기 한다.

거부감이 들어요. 하지만 생김새는 달라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쪽 자라왔다면 그건 문제 될 거 없다고 생각해요. (김민선)

효원과 민선은 국제결혼에 대해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선의 경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일이 아니라면 상관없고, 만약 미래의 자식이 국제결혼을 원한다면 그것은 허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효원의 경우 처음에는 국제결혼에 대한 나름의 로맨스를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보이는 국제결혼의 모습을 보며 거부감이 들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사실 중학교 때 까지만해도 국제결혼이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로맨틱하달까?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막상 보면 대부분 가난하고, 동남아 사람들과의 결혼, 농촌총각,,, 뭐 이런 분위기여서 싫어요. (김효원)

진경이의 경우 워낙 말수가 적은 친구여서 많은 표현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문화 현상에 대해 남들은 상관없지만 자신이 그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드리고 인정한다면 자신도 그 흐름에 따라가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세 아이는 다문화 현상과 비슷한 인식을 보인다. 거부감은 들지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삶과 분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적 소수자면 그냥 고립되고 혼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종류가 많아가지고 다시 알게 되었어요. (구진경)

사회적 소수자 개념은 읽으니깐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겠어요. 수업 때 배울 때도 줄치고 읽고 넘어가서 관심 없었지만 지금 읽으니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뭐예요? (간단히 설명해줌) 그런데 왜 보호해야하죠? 그럼 군대 간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나라에 대한 의무인데, 무언가 그들이 특혜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김효원)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하여 취업난과 대학입시 등을 떠올리며 경쟁자의 증가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또한 민족의식이 상실 될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 늘고 있는 강력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교과서의 의도와 다르게 아이들은 문화적 다양성의 심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지금 상태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굳이 낮은 문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경쟁의식과 위기감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문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갈등과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는 교과서의 부분에 대해 아이들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 같아요. 우리나라랑 외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아래로 보고 무시하고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갈등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김민선)

갈등이 발생 할 거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원래 친구들 사이도 성격이 다르거나 하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생김새도 다르고 음식도, 말도 문화도 다르다면 더 하지 않을까요? (구진경)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이 편견과 선입견임을 제시하는 부분을 보며 아이들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였다. 첫 번째는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나 행동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 그냥 많이 도와주어야한다는 생각이예요. 이해해 주면 될 거 같은데 고정 관념 같은 것이 그런 것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구진경)

그리고 차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효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도 사회적 소수자 인거 같아요. 저도 키 작고 뚱뚱해서 차별받아요. 예쁜 옷 입기도 힘들고, 옷가게 가도 매번 사이즈 없다고 하고.. 그냥 쪼끔 기분이 그래요. 그래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효원)

(3) 다문화 이야기 3 : 경쟁과 위기의식

보람이와 수정이 성민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현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보람이의 경우에는 단일민족의식이 대화 속에서 상당히 강하게 드러났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수정이와 성민이의 경우 다문화 현상을 직접 접한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보람이의 경우 현재 방과 후 봉사활동을 통해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를 둔 초등학교생을 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애들 숙제봐주거나, 수학이나 국어 가르쳐 주는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거기에 베트남 아이가 있어요. 딱히 처음에는 조금 차별이라기보다 신기하다는 느낌이 있고 다른 애들과는 다르다는 느낌? 처음에는 피부색 보고 알았어요. 좀 새까마니깐. 딱 봤는데 애가 진짜 한국 애들보다 더 착해요. 그리고 진짜 똑똑해요. 이번에도 오목인가? 장기 대회인가 나가서 상도 받았어요. 진짜 훨씬 나아요. 예의바르고, 착해요. 한국 애들이랑 피부 색말고 똑 같아요.(조보람)

가르치는 학생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문화 현상에 대한 보람이의 태도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저는 외국인이랑 같은 문화에 사는 것이 좋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되요. 그냥 한민족? 우리끼리 같이 사는 게 더 바람직 한 것 같아요, 굳이 이런 문화를 만들고, 받아드려야 하나 싶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전통을 잘 지키면서 단일민족을 잘 유지하였으면 좋겠어요. 전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사실 히틀러가 유대인이 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 그 열등감 때문에 정말 싫어해서 2차대전 때 유대인을 많이 학살했어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히틀러의 마음이 이해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3D업종 같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건 괜찮은데 높은 위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싫어요. 그냥 하위계층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높은 계층 하려면 자기 나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조보람)

수정이와 성민이는 다문화 현상의 증가에 대해 위기감을 나타냈다. 수정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단일민족의 의식이 다문화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만든다고 이야기 한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외국인의 증가)가 되는 것이 싫어요 좀 적당히 있어야죠. 괜히 경쟁자만 늘 것 같고, 그냥 싫어요. 취업도 힘들다던데 그들 때문에 더 힘들어 질 것 같아요. 리고 저희나라는 다문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쪽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 입장을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고 싶은데 자꾸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쪽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고, 알고 있지만 웬지 실천하기 어려운 분위기와, 환경? 그냥 그런 느낌. (장수정)

성민이의 경우 ‘종족의 침입’이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다문화 현상과 더불어 혼혈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최근 있었던 ‘오원춘 사건³⁾’과 같은 외국인의 범죄가 이러한 인식을 더 강하게 만든 것 같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위기감이 들 것 같아요 다른 종족이 침입하는 거 같은... 나쁜 맘인데 진짜 이야기해도 되요? 혼혈, 그런 것 막 안했으면 좋겠어요... 음.. 국제결혼 이런 것도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시골에서 결혼만하고 도망가고, 막 돈 주고 결혼을 사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쁜 일도 많이 저지르잖아요. 오원춘 사건 같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범죄들 많잖아요. (정성민)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갈등과 차별의 책임을 주류집단인 우리로 인식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반면에 아이들은 주류집단 뿐 아니라 소수자 집단도 당연히 그러한 갈등과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갈등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자기나라 문화도 있고, 엄마가 다문화인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깐 문화적으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특히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릴 때부터 다르다는 걸 아니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도 차별에 그런가 보다 할지도... 아닌가요? (장수정)

그런데 개네들도 어릴 적부터 놀림 당하고 자라면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3) 2012년 4월 중순 수원에서 중국인 오원춘이 저지른 토막 살인 사건이다. (경향신문 2012.4.26. 보도)

받아 드릴 것 같아요. 상처는 받겠지만, (안 놀리면 되지 않을까?) 안 놀리는 것이.. 어린 친구들이 그게 안돼요. 어떻게 되요. (정성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세 아이의 관점도 비슷했다. 특히 보람이의 경우에는 ‘구조화된 행동’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사람은요 구조화된 행동을 해야 해요. 저는 그런 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수적인 것 같은지 몰라도 그래요. 그냥 비정상이라 생각해요.(조보람)

세 아이 모두 다문화 현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타 문화 집단보다 우리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신의 문화가 ‘구조화’, ‘정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사회적인 ‘위기’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보람이의 경우에는 차별이 당연하며, 본인 역시 차별을 받는 상황이 오면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음.. 차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돼서 그곳에서 살게 된다면 그곳에서 받는 차별은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그것을 참고 이겨내야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차별하는 사람들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니깐 참고 이겨내는 것이 당연하거 같아요. (조보람)

독특하게 보람이의 경우에는 3단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4단원에서도 강하게 묻어났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따로 격리시켜 그들끼리 살게 하는 것이 그들과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이야기한다.

수업시간에 생각해 본적은 없는데요. 지금 들은 생각이 있어요. (웃음)
근데 너무 극단적 인거 같아요. 저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니깐 그런 독특한 사람들은 옛날에 문둥병 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그들끼리 살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사람들을 모아서 각각 따로 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레즈비언이나 게이도 그들 따로, 장애인들까지 모여살고 비슷한 종교끼리 모여살고 그러면 그들도 행복할 거 같아요.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의 차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강화가 대안인거 같아요. 특히 가정교육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참 그리고 다문화 학교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만 모여서 다니는 학교요. (조보람)

하지만 보람이 역시 자신의 견해가 극단적이고 현실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 더불어 가정교육을 통한 의식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아이들 역시 어느 정도 단원에서 의도하고 있는, 제도와 의식 개선을 통한 관용의 분위기 확산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다.

물론, 보람이는 보람이 표현대로 ‘구조화된 행동’ 아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는 보람이의 신념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했다.

전 일반적으로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 형태 이외에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울때도 조손가정이나 편부모가정은 인정
하지만 다른 형태의 가족은 거부감이 들어요.(조보람)

일곱 명의 햇빛여고 아이들 중 보람이를 제외하고는 다문화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 또한 아이들은 대부분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통해 다문화 현상을 접하고 있으며, 실제 교과 단원의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교과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받아들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4) 다문화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내러티브가 지니는 교육적 의미

앞서 학생들의 내러티브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인식의 태도와 관점에서 다문화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의 내러티브 속에서 학생들이 가진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인식과 단원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고 있었다.

학생들이 경험한 일방적인 전달 수업, 교과서에 줄치는 형태의 수업 방식은 교과 단원이 의도한 바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인식의 틀을 변화하고, 구성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다문화 단원과 현상에 대한 기억과 인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단원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다시 읽어보게 하고 생각을 나누었다. 물론, 연구자의 관점과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교과내용에 대한 설명의 최대한 배제 하였으며, 학생들이 교과서를 직접보고 관련 내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과정 속에서 단원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되새겼다. 그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의 긍정적이며, 이전에 이루어진 현장 수업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나름의 의미부여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스스로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받아들였다. 특히 교과서의 의도와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내러티브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교육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학생들의 내러티브 분석결과는 학생들이 아직 다문화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새로운 사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다문화

사회로의 변모로 문화적 다양성이 실현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내러티브를 분석해보면, 아직 다문화 현상에 대해 명확한 개념이 서지 않아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단원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을 외국인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중국동포, 북한 이탈 주민과 같은 국적, 지역, 인종, 민족적 의미의 사회적 소수자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장애인, 노약자들처럼 종교, 장애, 연령 등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로 그 개념을 확장하여 이해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이 부분을 보며 상당히 새로워한다.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성적 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개념으로 확장되는 내용을 보며 상당히 흥미를 가졌다.

5단원에서는 가족형태의 다양화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할 것을 의도한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은 교과서의 ‘시사산책’ 부분에서 제시된 국제결혼가정, 한 부모가족, 독신가족, 재혼가족, 무자녀 가족, 동성가족 등에 대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시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둘째, 학생들의 다문화 단원에 관한 내러티브의 분석결과는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대한 경계심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수민이를 제외하고, 6명의 학생들은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문화적 다양성의 심화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와 우려를 표현한다. 학생들의 부정적인 성향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은 다문화 사회 도래로 인한 외국인의 증가로 자신들이 누려할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나, 취업난과 같은 경쟁이 심화 될까하는 두려움이 표현되었다. 또한, 민족적 정체감의 혼란이다. 다문화 사회의 도래로 우리 민족의 문화나 정체성을 잃게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는 외국인 강력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이다. 이는 아마 인터뷰 시점에서 한참 이슈가 되고 있었던 오원춘 사건과, 학생들 사이에 루머로 퍼졌던 ‘인육데이’⁴⁾와 인육캡슐 사건 등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기가감이 들거 같아요 다른 종족이 침입하는 거 같은,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 올거 같아요. 특히 외국사람? 그러니까 혼혈아 이런 학생들은 내가 누구인지 헷갈릴거 같아요. 걸모습은 다른데, 분명 살아온 문화나 환경은 익숙하니... 또한 우리도 나중엔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을 잃고 혼란스러워 할 거 같아요. (정성민)

직장 같은 것도 경쟁이 치열해 지겠어요. 요즘 취업난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갈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진경)

세 번째, 학생들의 내러티브는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장애나, 고령, 성적소수자의 경우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인정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개인의 선택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역 차별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네 번째, 학생들의 내러티브 속에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넘어서, 주류 집단인 학생들에 대한 인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학생들의 내러티브 속에서 학교 교육의 강조와 더불어 가정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신들이 받지 못했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난다. 다문화 교육이 좀 더 어린학생

4) 인터넷과 SNS에 퍼졌던 일종의 루머로 2012.10.10.일 중국인들이 인육을 구하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 올 것이라는 괴담으로 ‘인육캡슐’ 사건과 함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경인일보 2012년 9월 18일)

들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앞으로의 세대들이 어떻게 받고, 인식을 어떻게 세워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처음 접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다음 세대들은 경험이나 교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우리 뒤의 학생들은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없으니깐. 사실 고등학교 2학년이나 와서 처음 배운 것이니까요. 좀 더 어려웠을 때 배운다면 훨씬 나올 거 같아요. (조수민)

우선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어릴 적부터, 유치원부터의 교육부터요. 그리고 그들이 일반 한국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배경과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들이 커서 스스로가 한국인이라고 느껴야 사회적인 갈등이 줄어들고 그럴 거 같아요. (김민선)

이러한 갈등과 차별 현상에 대해 교과서에서는 단일 민족 국가로써 다문화 사회에 갖는 부정적 견해는 편견의 결과이고, 인종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존중하고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주의와 더불어 개방적 태도와 관용의 정신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또한 다문화 현상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식적 변화와 더불어 법, 정책,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과서의 이러한 의도를 학생들이 스스로 교과서를 고찰하며 찾아가고, 동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게다가 학생들 역시 제도적인 뒷받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나름의 제도들을 제시한다. 학생들의 내러티브 속에서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부정적이고, 무관심한 이유가 어릴 적부터 다문화 현상을 접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유아 시절부터 꾸준하고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V. 논의 및 시사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다문화 수업의 실제와 학생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다문화 사회에 대한 물음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수업시간에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과 선생님의 인터뷰 속에서 지금의 입시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논의 된 학생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내러티브를 종합해 보았을 때, 그것이 던져주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다문화 교육이 실종된 다문화 수업

다문화 단원의 수업에 대한 경험과, 아이들이 다문화 단원의 수업을 통해 어떻게 다문화 단원에 대해 인식하고 느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실제 수업은 다문화 단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목할 만한 수업사태나 수업내용은 없었다. 즉, 이러한 다문화 수업이 이루어진 이유는 다문화 사회, 다문화 단위이라는 주제가 교사나 학생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 입시 위주의 풍토가 다문화라는 주제를 주변적 이슈로 밀려나게 하는 것이다.

인터뷰 초반에 아이들이 대답한 다문화 현상에 대한 정의를 통해 다문화 단위 수업 이후의 아이들의 느낌과 이해정도, 즉, 단원이 의도한 바를 얼마나 아이들이 받아들였는가를 추측해 보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인 일곱 명의 아이들은 이전에 다문화 단원을 배우거나, 유사한 내용의 학습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인터뷰 초반에 이야기 했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정의가 아마 사회문화 수업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단원이 의도한 바가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V-1> 아이들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정의

구진경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를 다문화라고 생각해요.
김민선	다른 나라 사람 가정이나, 혼혈이런거?
장수정	혼혈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나라사람들이 이태원 같은 데 같이 사는 거요
김효원	외국문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거. 아~ 처음에는 다양한 문화의 줄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조보람	여러 나라 문화가 교류를 함으로 인해 서로 눈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게 다문화죠,
정성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문화 안에서 같이 사는 것. (교과서 읽는 말투), 사실 별 생각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저는 다문화하면 외국인 노동자만 떠올라요. 다문화가 외국인 노동자를 말하는 건줄 알았어요.
조수민	처음에 농촌에서 베트남 아가씨 데려다 결혼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 거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적부터는 그게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유학 가서 사귀고 와서 결혼하는 것도 다문화라고 생각해요

다문화 단원에서는 단원의 학습을 통해 인종 뿐 아니라, 성, 언어, 장애인, 고령자, 동성애자, 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다문화로 인식하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의도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현재 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갈등과 차별 등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관용과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해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상호이해와 평등관계를 중시하고,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를 함양을 의도한다.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이해를 통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여 민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 아이들은 다문화를 단순히 다양한 문화나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외국인과 함께 사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수업을 통해 단원을 학습했고, 중간고사와 기말 고사를 통해 해당 단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단원이 의도한 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이 받은 다문화 수업은 다문화 교육이 실종된 다문화 수업이었다. 수업 때 강조되지도 않고, 시험에 대한 비중도 적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배웠다는 기억은 희미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즉, 다문화 단원이 의도한 바가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교과단원이 의도한 수업과 실제 수행된 수업사이에 분명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조금 급하게 줄치고 넘어가서 그다지 잘 모르지만, 다른 부분 수업할 땐 필기해주시고, 예와 설명 해주시고, 그래요. (구진경)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사는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을 그 원인으로 들었다. 비교적 대학 입시에 비중이 적은 다문화 단원에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집중이수제와, 학교행사 등으로 인한 수업시간의 부족을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한다.

집중이수제로 진행되다 보니 한 학기동안 진도를 나가야 하죠. 게다가 학교행사, 공휴일 제외하고 나면 진도 나가기 바빠요. 진도 나가면서 간단히 설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또 시간이 된다고 해도, 내신에 입시에 비중이 적은 부분에 시간을 쏟으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아이들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다. 실제로 햇빛여고 아이들은 대부분 사회문화를 수능의 선택과목으로 할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문화 단원에 대한 수업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신이나 수능에 그다지 비중도 없고, 수능에서도 특별한 내용을 몰라도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조대훈(2012 b)는 학업성취도와 대학입시에 매진하는 학교의 일반적인 정서가 다문화 교육과 같은 교육과정 주제들을 비교적 덜 중요한 것으로 주변화 시킨다고 말한다.

교사 역시 다문화 단원을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는 다문화 단원의 수업이 적극적이고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

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다문화적 효능감의 부족이라는 내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다문화적인 가치를 함양시키려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나 수업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쉽지 않죠. 괜히 ‘이 분야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데 선불리 시도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시간을 들여 학생들을 마루타 삼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Banks(2007)에 따르면 다문화적 환경에서 유능한 교사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은 물론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교사는 다문화 수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외적제약과 더불어 교사의 내적인 요인도 다문화 단원에 대한 수업을 어렵게 함을 요소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을 꼭 해야 하는가?’ 라는 인식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구체화 되지 않은 인식이 정규 수업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의 실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 단원이 교과가 의도한 방향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교육을 사회과 교육 안에 어떻게 담아내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고립된 섬” 으로서의 다문화 단원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교육과정의 범위와 계열에 관한 구조적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조대훈(2012 b)은 관련 연구에서 다문화 수업이 학교의 일상생활과 완전히 단절된 채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문화 단원 역시 “고립된 섬” 처럼 존재한다. 이는 다문화 단원이 아무것도 연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적으로 던져지며, 수업 이후 어떠한 학교생활 속에서도 다른 교과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것을 들어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아이들의 내러티브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다문화에 대해 교육과정 속에서 접한 경험이 없고,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 잠재적 교육과정 속에서도 학생들은 다문화에 대한 것을 접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내러티브 속의 다문화 단원은 고립된 섬과 같았다. 학생들에게 다문화 현상은 너무나 낯선 개념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다문화 현상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거나 체계적으로 접해 본적이 없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다문화 단원은 낯설고 갑작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아이들이 경험한 일방적인 전달 수업, 그리고 핵심 단어 중심의 줄치는 방식의 수업은 아이들이 다문화 현상이라는 개념을 인식하는 기회를 가지기에는 역 부족이었다. 즉, 단원이 의도한 바를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인터뷰 초기 학생들은 학생들의 내러티브를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인식의 틀 안에서 다문화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 학생들이 다문화 교과를 받아드리는 데에 있어 학생들이 다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면담 과정에서 학생이 스스로 단원의 내용을 살펴보고 생각하고, 이야기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학생의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아마도 실제 수업 속에서 이 단원들을 충실히 다루었다면 아마도 단원이

의도한 긍정적인 변화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다문화 단원의 구성에 있어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토론, 그리고 다문화 현상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사례나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아이들은 면담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다문화 현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유에 대해 어릴 적 이와 같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신의 미래의 자녀가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을 받아 다문화 현상에 대해 편견이 없어진다면,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본인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국제결혼이나, 성적소수자와의 접촉 등도 허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내러티브는 다문화 교육이 유아기부터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사회과 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다문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교과서, 교과 단원의 존재만으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다문화 교육의 본질과 실현 방법에 대한 일종의 판단착오 일지도 모른다.

학생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일회적 수업이 아닌 보다 체계적으로 다문화 교육과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보여주기, 생색내기식의 교육과정 처방이 아닌 다문화 교육의 대한 본질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과 교육과정과 학교의 일상적, 잠재적 교육과정이 변화해야 함을 아이들의 내러티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다.

학생들이 바람직한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인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람직한 문화 인식의 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다문화 단원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사회과 교육 안에 다문화 현상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녹아져야 한다. 또한 유아, 초등학교 시절부터 바람직한 인식의 틀을 구성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살아있는 다문화 수업에 대한 요청

학생들은 본인들이 다문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실제적이고 와 닿는 이야기가 교과서에 담기기를 원한다. 또한 교과서 속에 담겨져 있는 탐구활동이나 사례들을 수업시간에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원했다.

교과서 내용에 있어서도 예시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는 이유가 나중에 다문화를 접하거나 사회적 소수와 함께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와 닿지 않고, 그냥 딱딱하다는 느낌? 그냥 시험을 보아야하는 뻔한 내용이라는 생각만 들고, 교과서의 예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제적이었음 좋겠어요. 수업 때 아쉬웠던 것은 그나마 교재에 나와 있는 탐구활동이나 실제적인 예들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줄만 치고 넘어가니깐 그럴 기회조차 없어서 아쉬워요. (김민선)

학생들의 내러티브 속에서 실제 수업 속에서 배운 다문화 단원이 실생활과 밀접한 단원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실제 생활 속에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최소한 교과서 단원에 제시된 부분들이라도 충실히 토론하고 생각할 기회라도 있기를 원했다.

학생들은 다문화현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많이 부족했지만, 교과서를 보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내는 것들이 다문화 교과가 의도한 것들과 어느 정도 유사함을 찾을 수 있었다

앞서 지적하였 듯이, 학생들은 일방적인 전달 수업, 토론이나 참여 수업보다는 단순히 핵심개념을 짚고 빠르게 지나가는 형태의 수업을 받았다. 하

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현장수업에서는 가지지 못했던 다문화 현상에 대한 나름의 의미부여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다문화 단원과 현상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접근 할 때, 단원이 의도한 바를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수업에 있어 중요한 점은, 단순히 사실과 교과단원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최소한 현재 교과서 안에 담겨진, 탐구활동이나 사례들을 수업시간을 통해 다루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다문화 단원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에 대한 변화, 그리고 교사의 다문화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문화 효능감의 함양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 학생들의 공통점은 다문화 단원을 고2가 되어서야 처음 접했고, 그리고 주변에 다문화현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다문화 단원을 이해하고, 다문화 현상을 수업을 통해 받아들이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 단원의 내용자체가 실천적이고,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수업과, 교과서의 내용을 고찰해 보는 과정에서 이를 실제 삶과 연결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앞서 인터뷰 내용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학생들은 다문화현상에 대한 경험이나 선행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경험담이나, 실제적인 예나 사례들이 좀 더 많이 구성되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4. 연구 참여 경험이 가지는 긍정적 영향

질적 연구의 측면에 있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 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실제로 김민영(2008)의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 관한 연구가 오히려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연구 윤리가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곱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과에 대한 생각과 인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초반 아이들은 다문화 현상에 대해 무관심하였고, 다문화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다문화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고, 인터뷰를 마친 후에는 아이들 스스로가 다문화 현상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 교과와 우리 사회가 의도하고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였다.

저는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거 같아요. 수업때 솔직히 즐만치고 넘어가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다문화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내가 가진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고, 약간의 변화가 생긴거 같아요, 나중에 외국인이나 다른 사회적 소수자를 만나도 예전 보다는 좀 덜 거리끼게 될 거 같아요. (김민선)

여섯 명의 아이들은 두 차례의 인터뷰 속에서 스스로 다문화 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하지만 앞서 분석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보람이의 경우에는 인터뷰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도 상당히 자 문화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인터뷰가 끝나고 2주 정도 흘렀을 때 보람이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인터뷰 다 끝났나요? 이제 안하나요? 근데 선생님에게 이 말을 꼭 해야 할 거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외국인들이랑 다문화 사람들이 증가되는 것이 정말 싫고, 히틀러의 입장이 이해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랑 인터뷰하면서 조금씩 내 생각이 잘 못되었나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어제 제가 돌보고 있는 베트남 아이의 엄마랑 대화를 했는데요. 그 엄마가 너무 착하고 좋으신 분 인거예요. 똑똑하시고, 다정하시구요. 우리 부모님과 별 다를 것이 없더군요.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외국인들이랑 다문화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가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 물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건 아직 싫지만 어느 정도는 괜찮을 거 같아요.”(조보람)

학생들의 태도 변화나 보람이와의 에피소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다문화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 연구 과정 중에 이러한 변화를 의도하진 않았고, 또한 연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인터뷰 시에도 연구자의 견해나, 생각 등을 배제하였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스스로의 생각의 구조를 확장시키고, 변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 윤리 측면에서 연구자와 아이들이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사회문화 속의 다문화 단원은 한국사회가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 급격히 다문화화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다문화적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방지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처 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의 함양을 가진 시민의 육성을 의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가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심층적인 파악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 교과와 다문화 단원에 대한 인식과 내러티브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문화 단원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파악하고 성공적인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햇빛여고 일곱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다문화 단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학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수업 경험과 기회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다문화 교과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학생들이 다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다문화 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실제 단원내용을 받아드리는 데 있어 교과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비판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연구 참여자 학생들이 경험했던 강의식 수업, 핵심 단어에 대한 줄치는 형태의 수업으로는 단원이 의도한 바를 학생에게 전달하기 어려웠다.

두 번째, 학생이 스스로 단원의 내용을 살펴보고 생각하고, 이야기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다문화 현상과 사회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 수업 속에서 이 단원들을 충실히 다루었다면 아마도 단원이 의도한 긍정적인 변화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단원의 구성에 있어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토론, 그리고 다문화 현상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사례나 경험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면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다문화 현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유에 대해 어릴 적 이와 같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신의 미래의 자녀가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을 받아 다문화 현상에 대해 편견이 없게 된다면,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본인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국제결혼이나, 성적 소수자와의 접촉 등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다문화 교육이 유아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네 번째로, 교사의 인터뷰내용에서도 볼 수 있었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다문화 단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교사의 다문화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문화 효능감의 부족 등이 실제 수업의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었다. 즉 다문화 단원에 대한 수업이 교과가 의도한 바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 수업을 실행하는 주체는 교사이지만 교사가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식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반이 조성되어 외적인 제약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실제적인 측면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다문화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다문화 교육을 교과이외의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즉, 교사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어도 실천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에 있어서 다문화적 내용요소와 목표를 더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다문화 교육이 교육 과정 안에 있는 것임을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한 입시만을 강조하는 교육을 넘어서 다양한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교육의 실천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다양한 인종과 민족, 그리고 다양한 가치와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문화와 관련한 여러 체험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다문화관련 기관과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다문화 교과에 대한 효능과 더불어 학생들의 인식도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다문화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실제 학습 경험과 그 이면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른 인식과 다문화 단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에 연구들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학생들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양적 연구의 방법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면담의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다문화 단원의 인식에 대한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의 한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 단원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과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학생들의 다문화 교과에 대한 인식과 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실제 다양한 학교와 학급의 다문화단원 수업의 관찰을 통해 다문화 교과의 수혜자인 학생의 측면에서 다문화 교과와 수업의 실천양상을 파악하고, 다문화 교과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김영희(2010),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 강동연(2007),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사회과 교육 방향』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신일(1999),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교육의 과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 논문집』 제28권, 208-228쪽.
- 구정화·박윤경·설규주(2009), 『다문화 교육의 이해』 서울, 동문사
- 김대현 외(2010), 「국제 이해 교육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초·중등 예비교사들의 인식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7권 4호, 343-367쪽.
- 김선미(2000), 「다문화교육의개념과사회과적용에따른문제」 『사회과교육』 제4권, 63-81쪽.
- 김수라(2010), 『중등 사회과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아영 (2006), 『초등교사의 다문화교육 인식 실태 조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홍운·김두정(2008), 「다문화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제29권 2호,41-63쪽.
- 노선하(2004), 『초등사회과에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경환·황혜원(2007), 「중등교사들의다문화적인식에대한연구-수도권국어·사회과교사를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39권 3호, 79-100쪽.
- 박남수(2000), 「다문화 사회에 있어 시민적 자질의 육성: 사회과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모색」, 『사회과 교육』, 제33권, 101-117쪽.
- 박남수(2007), 「초등학교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 『사회과교육연구』, 14(1), 213-232쪽
- 박수미·정기선(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70권, 5-26쪽.
- 박윤경·성경희·조영달(2008), 「초·중등 교사의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태도」 『시민교육연구』 40(3), 1-28쪽.
- 변신영(2007), 『코시안에 대한 개방성과 고정관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종남(2012),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연구」 『교육문화연구』 18(1), 83-110쪽.
- 서종남(2010), 「중등학교 다문화 교육을 위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조사 연구」 『중등교육연구』 58(1), 93-116쪽.
- 설규주(2012), 「초중고 사회 교과서의 다문화 관련내용 분석 -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사회·문화’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5(1), 1-28쪽.
- 양영자(2007), 「분단-다문화시대 교육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성 모색」 『교육과정연구』, 25(3), 23-48.쪽
- 여소영(2006), 『고등학생들의 세계화 의식 실태분석』,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성배(2006),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실태와 대안모색」 『인간연구』 제12권, 1-15쪽.
- 유난영(2008)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거리감 연구 : 김포시 인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은지용(2009), 「다문화적 인성발달이론에 기반한 다문화 학습모형탐색」 『시민교육연구』 41(1), 107~139쪽.
- 임수연(2005), 『다문화 교육을 위한 미술과 통합학습』 대구교육대학교 교육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전경숙·정기선·이지혜(2007), 『다문화교육정책방안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석원·정진철(2012), 「청소년의 다문화 교육경험과 사회적 친밀감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제5권, 51-68쪽.
- 정선희(1996), 『다문화 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선희(1997), 『다문화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 여자 대학교 대학원
- 조대훈(2012 a), 「고등학교 사회과 다문화 수업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간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교육연구』 제52집, 43-70쪽.
- 조대훈(2012 b), 「다문화 사회 이야기: 방과후 다문화 수업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과교육』, 51권 4호 (출간예정).
- 조용환(1999), 『질적연구: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지성애 외(2006),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다문화교육 실태와 교사의 인식 비교, 『유아교육학론집』 10(4), 351-369쪽.
- 한명희(2005), 『국제 이해 교육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과 실행 수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미애(2009),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들의 차별적 태도 연구」, 『시민교육연구』 41(3) 205-226쪽
- 황정미(2007),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종적 배제주의, 다민족. 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
- 황혜원(2007), 『중등 사회과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Dasen, P. (2000). *Rapid social change and the turmoil of adolescence*: Across cultur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Tensions*, 29, pp.17-49

- Banks, J. A.(2008),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4th ed.)*, Boston: Allyn & Bacon.
- Banks, J. A.(2006),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Foundation, curriculum, and teaching*,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Bennett, J. M. & Bennett, M. J.(2004).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An integrative approach to global and domestic diversity*”, In Landis, D., Bennett, J. M. & Bennett, M. J.(ed.).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London: Sage Publications.
- Jensen,J.(2003) *A cultural developmental approach to moral development*. Unpublished manuscript.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Washington, DC.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교육과정 해설서 - 사회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사회과목 교육과정 개정
- 교육과학기술부(2012), 교육과정 고시문 (고시 2012-3호)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 개정 교육과정개요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 출입국 관리 사무소 (2011) 외국인 정책 본부 통계 자료,
<http://www.immigration.go.kr>.
- 통일부, 자료마당 통계자료, 북한이탈주민정책,
<http://www.unikorea.go.kr>,2011년5월.
- 경인일보(2012년 9월 18일) "10월 10일 인육데이?" 괴담확산에 네티즌 불안
- 경향신문 (2012년 4월 26일) ‘수원살인사건’왜곡된 성생활이 범행 동기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cognition of students for multiculturalism unit in social studies subject

Kim Ga Young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rean society has been becoming a multicultural,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phenomenon will be exacerbated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multiculturalism education is to prevent social conflicts and problems that may appear due to multicultural changes and to foster citizens with the cultivation of civic qualities to be able to cope well in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difficult to find in-depth whether this purpose is being fully delivered to the students or in what aspect it appears. In this study, the narrative and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unit in socio-cultural curriculum were investigated.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understand what the multiculturalism unit means to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successful multiculturalism education.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obtained on the multiculturalism unit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teen students sampled from Hanbit Girls' High School.

First, the classroom experience and opportunities are needed for students to think for themselves. Opportunities for the students to think for themselves, discussions, and direct or indirect instances and experience are required that can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multicultural phenomenon.

Second, the entrance examination-oriented educational climate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progress of the actual lessons. In the entrance examination-oriented education like this, teachers will face difficulty in practice even though they have concrete cogni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ir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needs changes in the long-term perspective. Social support system is required for the practi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onfigure the network of professional multicultural agencies that can actually help teachers in the practi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se efforts would enable efficacy of multicultural curriculum as well as refine students' awareness.